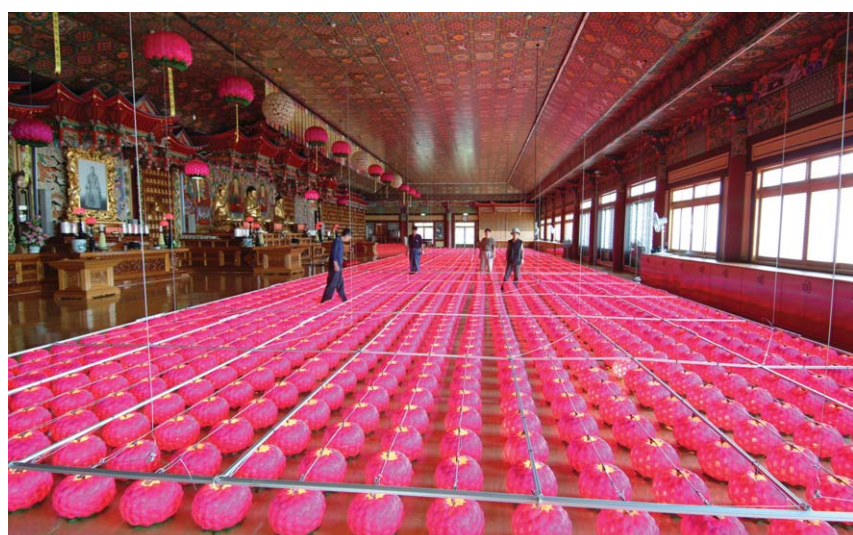


초파일 앞두고 찾아가 본 연등공장



정성애기속 더해 연등 밝히다

푸름이 피어나는 4월이 되면 전국 사찰은 연일 마다 정성을 다하는 손길로 가득 찬다. 부처님오신 날 기간 동안 거리를 화려하게 물들일 오색연등을 준비하는 모습은 불자들의 연례행사다.

하지만 옹기종기 손마다 붉은 물을 들이던 그 모습은 하나의 추억이 되어가고 있다. 절의 규모가 커지거나 신도수가 늘어 손수 만들던 연등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신 보다 전문화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기업에서 만든 연등으로 대체되고 있다.

3월 20일 찾은 경기도 곤지암에 위치한 찬덕연등대표 김기찬 대표에서는 4월 봉축기간을 앞두고 연등을 만드느라 분주했다. 일하는 사람은 10명 남짓하지만, 자체생산이 가능한 자동화 기계로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재단원 원단이 연일모양으로 탄생되고, 이런 연등을 숙달된 직원들이 플라스틱 원통에 일일이 붙인다.

연등을 품에 안고 정성을 다하는 모습에서 공양미를 짓기 위한 농부의 모습이 비친다. 여든 여덟 번 손길이 간다고 해서 붙여진 미(米). 비록 농기계로 경작할 수 있는 땅은 늘었지만, 쌀 한 톨을 위해 온 여름 고생한 농부의 정성이 그대로 담긴 것처럼, 불을 밝히는 소켓을 제작하는 과정과 수백 개의 연

등을 한꺼번에 매다는 과정까지 등을 공양하는 직원들의 모습은 장엄 그 자체다.

아직까지 연일을 붙이는 과정은 자동화가 이뤄지지 않아 하루 한 명당 만드는 연등은 60여개. 일반 사찰에서 일일이 현사를 굽혀 틀을 만들고, 연일을 붙여가며 꼴을 붙여 만드는 과정을 통해 하루 만드

는 등이 한명 당 5-6개 수준이란 점을 감안하면 놀랄만한 양이다.

등 제작과정에서 찬덕연등이 수차례 시행착오를 거쳐 3년 만에 개발한 형압기계(특허)와 철사로 만든 등살의 제작과정을 간단한 사출로 간소화시킨 플라스틱 등통은 핵심이다.

원단 자체를 일반 한지뿐만 아니라, 비 등 기상화 화에도 견디고 자외선 등에도 비교적 강한 나일론 등 다양한 소재를 골라 쓸 수 있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생산에도 적합하다. 최근 도입된 LED전구 등이 기존 백열전구에 비해 발열과 전력소모가 1/10 수준으로 줄었지만 플라스틱과 특수소재의 원단은

화재 위험까지 크게 낮췄다. 이러한 등이 개발되기까지는 17년 동안 등 개발에 매진한 김기찬 대표의 열정이 있었다. 현재 찬덕연등은 자체 R&D실을 갖추고 기술을 개발하는 몇 안 되는 업체 중 하나다. 실용실안과 의장특허 등 관련 특허만 30여개에 달한다. 좋은 것이 있으면 금방 따라하는 치열한 연등 업계 경쟁에서 특색 있는 일종의 보호 장치다.

최근에는 노스님과 노보살들이 많은 사찰을 위해 바닥시공과 다양한 높이에서 등을 달 수 있는 전통식 연등자동승강장치(특허)를 개발했다. 이날 공장 탐방에 이어 찾은 남양주 장안정사주지 지운 신축불사 현장에서는 승강장치 설치가 한창이었다. 찬덕연등 측은 비구니 스님들과 스님들이 많지 않은 사찰 등에서 인기가 높다고 귀띔한다.

무명속에 숨은 불성을 드러내는 지혜에 비유돼 중생의 어리석음과 세상의 어둠을 밝혀준다는 등(燈).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등공양으로 불법을 예경하고 그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며 온 세상에 진리의 법등(法燈)을 밝히는 발원이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길 기대한다. (031)-794-4055

글=노덕현 기자 dhavata@buddhapia.com
사진=박재원 기자 wanholla@hanmail.net



찬덕연등 김기찬 대표

“품격있는 등으로 ‘중국산’에 경쟁”

김기찬 대표(49·사진)는 연등과 사랑에 빠진 사람이다. 1992년 손으로 만든 연등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조잡하기 이를 데 없는 ‘비닐 등’이 전부였던 상황에서 호기롭게 출발했지만 30만 여개의 재고를 남기고 위기를 맞았었다.



김 대표가 타개책으로 모색한 것은 기술개발을 통한 상품다양화와 직접판매를 통한 원가 절감이었다. 이때부터 팔모등, 육각등, 연꽃등, 유등 등 다양한 색상과 모양을 한 2세대 등, 보관이 용이한 접이식 등과 LED등과 같은 3세대 등이 만들어졌다.

김 대표는 “각 사찰에 맞게 제작해야 하는 등의 특성상 제주도 등 전국각지를 직접 누빈다”며 “많이 달릴 때는 하루 1200km를 달릴 정도지만 길 가다가도 걸려있는 연등을 보면 누가 만들었을까 하면서,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했다.

이러한 열정에 국보급 문화재인 강진 무위사 대웅전을 비롯해 도선사, 화계사 등 찬덕연등의 연등이 달린 곳은 수백 사찰에 달한다. 백제문화축제 등 지역별 연등축제에도 찬덕연등에게 등 설치를 의주할 정도다. 하지만 최근에는 값싼 노동력을 통한 중국업체들의 도전이 거세지고 있다.

김 대표는 “공양의 의미를 되살려 중국산 비닐등을 지양하고, 품격 있는 등으로 불교가 대중 속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한다”며 국산등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당부했다.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투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